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2011년 12월 19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이호준(2110-4868), 임국현 사무관(2110-5411)
석유산업과장 조영신(2110-4890), 김용운 사무관(2110-5458)
가스산업과장 김용래(2110-4898), 이정주 사무관(2110-5469)
전력산업과장 최형기(2110-4897), 박정미 서기관(2110-4898)
석탄산업과장 권규섭(2110-5490), 천 강 사무관(2110-5495)

지경부, 「에너지자원 위기대응TF」 발족

– 월1회, 2차관이 주재하는 에너지정책 점검체계 구축 –
– 전력을 포함한 동절기 석유, 가스, 석탄 등 수급상황 점검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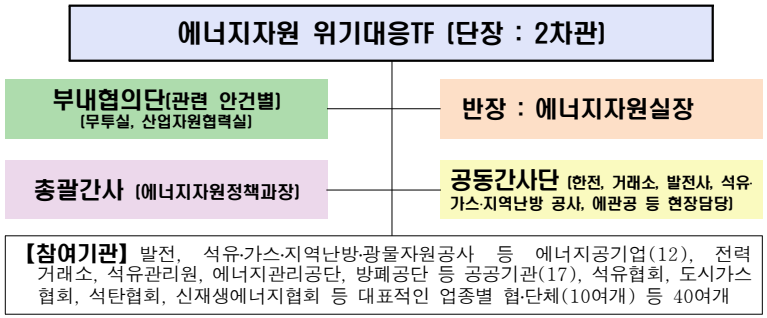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12.19(월) 2차관이 주재하는 "에너지자원 위기대응TF"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(10:30, 지경부)

○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비롯한 각 에너지원별 수급전망 및 대응방안 등 최근 에너지분야의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여 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함

○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전력을 포함한 동절기 석유·가스·석탄 등 원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

TF발족 관련 내용

□ TF 구성



○ (위원) TF 단장은 제2차관이 맡고 에너지자원실장(반장)과 에너지자원실의 모든 국장과 정책과장이 참여

*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총괄간사 겸임

○ (부내 협의단) 에너지 현안 중 무역투자, 산업자원협력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경우 무역투자실, 산업자원협력실의 담당 실국장이 '부내 협의단'으로 참여하여 보다 입체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을 강화

* (예) 해외자원개발, 에너지·녹색산업 해외진출, 이란제재 문제 등

○ (공동간사단) 또한, 실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에너지자원분야의 7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공동간사단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간사기관간에도 정보교류·정책집행의 연계성 또한 강화

* 석유공사, 가스공사, 석탄공사, 한국전력, 한국지역난방공사, 광물자원공사 등 원별 수급 담당기관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 총 7개 기관

○ (참여기관) 아울러 모든 에너지 공공기관(29개), 주요 업종별 협·단체(10여개) 등 40여개 기관*도 관련 분야 안건이 논의될 경우 참여

▸(에너지공공기관) 에너지공기업(12), 공공기관(17) 등 29개
▸(에너지공급 및 해외자원개발) 석유협회, 석유유통협회, 주유소협회, 도시가스협회, 민간발전협회, 석탄협회, 해외자원개발협회 등
▸(에너지절약, 신재생, 녹색, 에너지복지)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, 신재생에너지협회, 스마트그리드협회, 한국에너지재단 등
▸(연구기관) 에너지경제연구원 등

□ 운영방안

○ 당분간 월2회 2차관과 에너지자원실장이 번갈아 주재하며 개최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시에는 즉시 개최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,

○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등 당면현안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, 자원개발, 원전, 온실가스 감축 등 폭넓은 현안도 논의할 계획

동절기 주요 에너지원별 수급상황 점검 관련 내용

□ 금번 동절기는 이상기온 등에 따른 LNG·전력·석탄 수급 불안 요인과 대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존재

○ (석유) 고유가에 따른 소비절약과 난방유 대체로 소비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원유 도입 차질시 유가상승 및 석유수급 차질도 우려

* '10년 원유 중동의존도는 84.1%로 사우디(32.8%), 쿠웨이트·UAE(12.9%), 이란(8.3%) 順

○ (LNG)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발전용·도시가스용 LNG 수요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이상저온에 의한 수요증가 대비 필요

○ (석탄) 발전용 유연탄 수급은 안정적이나 동절기 연탄수요 증가로 무연탄 수급 안정화 필요

○ (전력) 급격한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비력 유지가 관건

□ 이에 따라 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등 에너지원별로 다음과 같은 동절기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·시행하기로 함

○ (석유) 동절기 난방 수요증가에 대비해 정유사의 난방유 생산계획을 점검,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축 등유(248만 배럴, 동절기 기준 21일분)의 방출을 검토

* 이란 제재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·추진할 계획

○ (LNG) 천연가스 재고는 2월말까지 충분한 수준(약 342만톤, 재고율 92%)*이나 이상기온, 전력수요급증 등에 대비, 천연가스 동절기 수급대책반(반장: 에너지산업정책관, '11.12.15~'12.3.15)을 중심으로 일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스팟물량 구매 등 물량 확보를 추진

○ (석탄) 연탄용 수요 부족에 대비하여 발전용으로 배정한 물량 일부를 연탄용으로 전환공급하고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물량도 활용

* 12월중 비축탄 7만톤을 추가 공급(당초계획 15만톤 방출→22만톤)하고 각 연탄공장이 하절기에 비축한 무연탄 40만톤(12월 현재)도 활용추진

○ (전력) 발전소 적기준공, 운영강화를 통한 공급능력 확충, 전력공급 차질방지를 위한 발전소·설비점검 강화, 전력수요관리 중점 추진 등 동계 전력수급대책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

□ 금일 회의를 주재한 조석 차관은 "9.15 대규모 정전사태, 대이란 제재 조치가능성 등 일련의 국내외 상황을 살펴볼 볼 때 지금은 에너지분야의 위기상황"이라고 진단하고,

○ "동절기 전력수급 대책 등 기존에 지식경제부가 수립한 모든 정책이 한치의 오차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실행력을 담보해야 하며, 이를 위한 최상위 추진체로서 위기대응TF를 출범하였다"고 TF 출범 취지를 언급하고,

○ 또한, "지식경제부는 물론 TF에 참여하는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수립·추진할 것"을 당부함

※ 붙임 : 에너지자원 위기대응TF 행사계획 1부.

<붙임>

에너지자원 위기대응TF 발족식 및 1차회의 계획

□ 행사 개요

○ 일시 및 장소 : ‘11.12.19(월) 10:30~11:35 / 지경부 6층 대회의실

○ 참석 : 제2차관, 에너지자원실장, 자원실 국장, 정책과장,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간사단 및 에너지원별 수급 관련 주요 협·단체 등 20여명

□ 논의 안건(안)

① 에너지분야 위기대응 TF 운영방안

② 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수급상황 점검

□ 세부진행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0:30~10:35(‘5)	인사말씀	2차관
10:35~10:40(‘5)	TF 운영방안	에너지자원정책과장
10:40~11:00(‘20)	동절기 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수급상황 점검	석유산업과장
11:00~11:30(‘30)	토론	참석자
11:30~11:35(‘5)	마무리 말씀 및 폐회	2차관

<별첨> 외부 참석자

□ 공동간사단(7)

소속	성명	직위
석유공사	권흠삼	기획관리본부장
가스공사	박영성 장인순	자원사업본부장 공급본부장(대참)
한국전력공사	조인국	기획본부장
대한석탄공사	백창현	기획관리본부장
지역난방공사	한건택	기획관리본부장(부사장)
광물자원공사	박성하	전략경영본부장
에너지관리공단	김인수	온실가스감축본부장

□ 참여기관(4)

소속	성명	직위
석유협회	이원철	상무
도시가스협회	김진덕	상무
석탄협회	박대주	부회장
에너지경제연구원	양의석	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